

海洋景觀을 考慮한 海洋建築計劃에 關한 研究

李 漢 錫*

On the Architectural Design Recommendation for Enhancing Seascape Quality

Lee Hanseok*

Key Words : 해양경관(Seascape or Oceanscape), 해양건축(Oceanic architecture), 수변공간(Waterfront), 해양공간(Ocean space)

Abstract

There are numerous structures linked with the sea. They are standing on the water's edge in the waterfront area or ocean space. The most important one of them is oceanic architecture. Oceanic architecture is architectural space created by directly or indirectly using the features of the waterfront or ocean in the design. Therefore the quality of seascape(or oceanscape)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oceanic architecture.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and planning of seascape are examined. Especially recommendations for planning of seascape are dealt with each category of seascape, and then on the basis of them 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s are suggested for creating good quality of seascape.

1. 서 론

해양건축물은 수변공간(waterfront)과 해양공간(ocean space)에서 인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 건설된 건축물이다. 해양건축 디자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해양의 고유한 자질과 특성을 디자인에 활용하여 해양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해양건축물이 해양과 맺는 관계들중에서 중요한 것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경관관계이다.

근래에 해양공간이용을 위한 수변공간개발 및 해양개발이 활기를 얻게되고 해양의 가치를 활용하는 건축물이 해변에 빈번하게 건축됨에 따라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아름다운 해양경관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관에 대한 연구와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고 해양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해양경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한

* 한국해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정부에서는 1998년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연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러 하고 있으며 이 법안에는 해양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0년까지 해양건축법을 제정하여 별도로 해양환경보전과 해양개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적인 연안 및 해양관리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해양건축물을 건설할 때 해양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계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계획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양경관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양경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경관계획 요소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분야별로 해양경관을 위한 계획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양경관계획 특성

해양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수변공간과 해양공간을 개발할 때에는 해양경관계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환경평가시에는 해양경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부지에서 경관은 부지내로부터의 내부 시점 경관과 부지밖에서 부지를 조망하는 외부 시점 경관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 시점 경관은 부지밖의 경관을 조망하는 것과 부지내의 조망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발부지에서의 경관계획은 부지내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밖으로 확장되는 성격을 갖는다.

해양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 상세계획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기본계획은 개발대상부지를 넘어 서 지역적인 관점에서의 경관계획을 의미하며 상세계획은 부지 자체내에서의 경관 연출계획 및 구체적인 설계를 의미한다.

경관계획은 대상부지와 주변환경과의 시각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 부지가 수변이나 해안에 위치하면 개발부지는 꽤 먼거리에서 볼 수 있으며 부지내에서도 멀리 떨어진 장소의 지형과 건물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해양경관계획시 유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변의 양호한 경관을 부지내로 끌어들인다. 이를 위해 주변 자연지형, 역사적 건물, 유명한 랜드마크 등에 대해 새로운 조망점을 제공하도록 도로계획, 외부공간계획, 건물매치계획을 한다.
- ② 주변에 경관상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이용형태가 부지의 어메니티 형성에 불리한 경우 마이너스 요인을 시각적으로 가리거나 완충 시설 혹은 완충 녹지의 배치등을 고려한다.
- ③ 부지 및 건물 자체가 기존의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한다. 즉 건물이 기존의 중요한 조망을 저해하거나 부지내 토지이용이 주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이상과 같이 해양에서 경관계획은 부지 자체 경관계획이전에 부지를 포함한 지역을 고려한 경관계획이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물이나 시설물이 경관상 어떻게 계획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해양에서 경관계획의 본래 목적은 해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을 가능한한 살리기 위해 시각적인 측면에서 공간계획과 건축계획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이 친근하게 바다와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친수공간을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공간들을 상호 분리시키기 보다 융합시키고 일체화하는 통합 계획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 경관계획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사이에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양경관계획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건물(군)과 수면과의 관계 : 평면구성과 단면구성
- ② 수면에서 인간적인 환경의 조성
- ③ 경관적 관점에서 식재 및 외부 구조물의 설치
- ④ 해양공간에서 오리엔테이션(방향 지시)을 위한 경관계획
- ⑤ 수면에서 야경에 관한 계획

3. 경관유형별 경관계획사항

해양경관은 기본적으로 자연형 경관과 도시형 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형 경관은 주요 구성요소에 따라 모래해안형과 바위섬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연형 경관을 경관구조와 형상에 의해 좀더 세분하여 경관의 특색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¹⁾.

표 1 해양의 자연형 경관 분류

유형이름		경관의 특색
모래해안형	만(灣)형	다이나믹한 해안선이 특징으로 해안선 방향의 경관이 중요함. 해안선의 만곡이 시각적으로 압축되어 강조됨.
	사주(沙州)형	사주를 사이에 두고 내해와 외해가 보이는 높은 곳에서 해안선 방향의 경관이 중요함. 해안선과 직교 방향도 중요함.
바위섬형	다도해형	주로 리아스식 해안으로 높은 위치에서 전체를 부감하거나 유람선등으로 섬을 돌면서 보는 것이 중요함.
	기암(奇岩)형	특별한 형상의 독립된 바위가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부터의 조망이 중요함.
	도산(島山)형	바다의 섬과 맞은편 육지의 산으로 구성되며 바다의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육지 혹은 섬이 조망의 중심이 된다.

이들 해양경관은 유형별로 경관계획상 취약요소를 지니고 있어 경관계획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만형의 경관계획에서는 해안선을 횡단하거나 해안선 근방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해안선을 따라 시선이 유도되기 때문에 곳(岬)과 같은 해안선의 종결부의 자연지형은 경관산 특히 중요하다. 또한 해안선 종결부의 배경에 산등이 보이는 경우에는 더욱 인공물이 종결부의 자연지형이나 산들과 경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주형 경관계획에서는 중요한 경관점에서 내해를 향한 시야가 좁혀질 위험이 있는 건

1) 磯部雅彦編, 海岸の環境創造, pp10-12 참조

설행위나 외해에서 대규모 매립행위에는 주의해야하며 내해의 규모에 비해 육지에서의 시점이 낮으면 외해로의 조망이 어렵고 따라서 특징적인 조망을 얻기 어렵게된다. 따라서 적정한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하여 내해, 사주, 외해를 모두 볼 수있도록 하는 것이 경관계획의 핵심이 된다.

셋째 다도해형의 경관계획에서는 섬이나 곳(岬)등 육지지형과 해변이 마치 상호관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의 위치와 높이 선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으로부터 건물이나 매립지와 같은 대규모 구조물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개발행위는 금지해야 하며 유람선의 주요 코스에서 보이는 경관과 시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취급하도록 한다.

넷째 기암형 경관계획에서는 시점으로부터 기암을 향한 시계에 인공구조물이 개입하지 않도록하며 어느 조망의 방향에서나 기암근처에 기암을 압도하는 규모의 인공구조물 설치를 해서는 않된다.

다섯째 도산형 경관계획에서는 중요한 시점에서 섬이나 산을 향한 조망에 놓여있는 수면을 매립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한다.

여섯째 도시형 경관은 해변을 따라 소나무숲과 같은 자연경관요소대신 건물이 늘어선 경관을 의미한다. 도시형 경관계획에서는 늘어선 건물과 해변 모래사장사이의 거리확보가 중요하며 해변가 산책로에서 해변을 향한 편안한 조망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늘어선 건물들은 규모 특히 높이가 일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4. 해양경관을 위한 건축계획

4.1 건축계획 기본방침

수변공간과 해양에서 건축계획은 해양의 귀중한 환경특성가운데 해양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① 건축계획시에 경관계획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호텔을 계획하는 경우 시가지 호텔과 리조트 호텔의 계획 목표가 서로 다른 것과 같이 해양건축계획의 목표는 육상건축계획의 목표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건축계획의 목적이 기존 해양경관의 보존인가 또는 기존 경관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인가 또는 전혀 새로운 경관을 만드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 ② 건축디자인에서는 주변의 경관조건 이해, 주변지형 및 자연경관과 조화, 독특한 경관요소 및 고유한 역사유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다와 결부된 새로운 건축공간을 창출하는 계획이어야 하며 건물이 수역과 육역의 양방향으로 모두 매력있게 계획한다.
- ③ 해양은 열린 큰 공간을 갖는 특성이 있으며 사람들은 수면을 조망하거나 물에 접촉하므로서 친수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해양건축계획은 「친수성의 느낌」을 증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④ 디자인 테마의 관점에서 해양건축을 경관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개성을 갖게

할 것인지 또는 지역 전체 경관과 조화를 주제로 계획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해양에 입지하는 개개의 건축물이 모여 지역 경관을 구성하므로 각 건물의 고유 조건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경관이 향상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 ⑤ 해양이용은 앞으로 단일한 이용에서 복합 이용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볼과 관련된 시설만이 아니고 볼과 관련이 적은 시설도 혼재하면 매력있는 경관이 형성된다. 해양이 복합적으로 이용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경관을 비롯한 환경의 개선 및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4.2 건물배치계획

해양경관을 위한 건축계획은 건물의 입지선정 및 배치부터 시작된다. 건물배치에서는 건물, 부지, 주변의 시각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계획상 가장 중요하다. 건물로부터의 조망 확보, 건물 주변에서 수변에의 조망배려, 해변경관을 위해 건물들의 연속성 확보, 복합적인 이용 가능성 제공 등이 건물배치 계획시 고려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계획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친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수변에 접근 가능하도록 시계를 확보하고 건물과 수변 오픈 스페이스와의 연결 관계를 상세히 검토한다. 수변을 향해 열린 공간은 개방감과 함께 휴식의 장소로서 활기찬 집합 장소로서 이용된다. 또한 수역에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면 친수성은 높아진다.
- ② 수면을 보면서 어프로치할 수 있는 동선의 설정, 건물 사이의 간극을 통해 수면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장소에서 수면을 조망하도록 한다. 여러 건물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수면을 볼 수 있게 건물을 비껴 배치하도록 한다. 수변에 가까운 건물은 벽면을 후퇴하거나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특히 시선을 막는 시설이나 식재는 하지 않도록 한다.
- ③ 건물이 배후지와 수역을 벽으로 차단하는 배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1층을 피로티로 하고 테라스와 슬릿 공간 등을 이용하여 수역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 주호가 수면을 볼 수 있게 배치하고 건물을 몇개의 동으로 분리하여 적절한 슬릿을 계획함으로써 조망을 확보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정원이나 마당에서 건물 사이의 슬릿을 통해 수면조망 가능).
- ④ 수변공간에서는 기존 건물과 벽면선을 가지런히 맞추거나 건물을 분절화하여 주변 건물과 스케일을 맞추는 등의 배려가 요구되며 재개발의 경우에는 유서깊은 건물과 가로를 보존하여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이 좋다.

4.3 건물평면계획

건물평면계획에서는 건물이용자들에게 수변에의 조망을 제공하고 타건물로부터 수변에의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 평면계획 그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평면계획이 필요하다. 수변에의 조망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망확보를 위한 평면계획이 요구된다. 중요한 세부 계획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건물용도에 따라 조망을 우선하는 정도와 그에 따른 평면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오피스,

호텔, 주택등에서는 주요실로 부터 조망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업시설, 전시장, 회의시설, 문화시설 등에서는 로비와 같이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조망이 중요하다.

- ② 조망확보를 위한 평면계획은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이 모두 수면을 향하도록 반원형상, L자형상, 원호형상으로 한다. 집합주택에서는 기러기행렬 형상으로 하여 다면적인 조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업시설에서는 외부로 지나치게 넓은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지만 중앙 입구홀 등은 바다를 향해 열린 구조로 하고 톱라이트 등을 이용하여 개방적인 공간으로 하며 바다를 향해 큰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외부 발코니를 설치하여 바다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③ 엘리베이터나 계단등 코아부분의 배치가 평면계획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역측에 주요실을 설치하면 옥역측에 코아가 배치되는데 트윈 코아를 계획하여 수역과 옥역의 양방향으로 시계를 확보하거나 코아를 중앙부에 집약시켜 건물의 외주부분에서 조망을 확보한다. 엘리베이터나 승강기 로비를 외측에 설치하여 조망을 즐기도록 계획할 수 있다.
- ④ 건물내부의 평면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변의 건축물이 갖는 스케일 및 외벽의 리듬에 조화되는 평면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심플리한 형상으로 해양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건물은 해양경관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방향을 알기 쉽게 하며 지역의 개성 및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런 평면계획에 적합한 건물로는 여객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이 있으며 멀리서 즉시 눈에 띄는 계획이 요구된다.

4.4 건물단면계획

건물의 평면이나 배치계획은 단면계획과 병행하여 검토한다. 특히 해양에 입지하는 건물에서는 경관적 측면에서 지상층, 중간층, 최상층을 어떻게 구성할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건물내에서 조망은 건물내 시설의 수직적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외부로 부터 조망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건물의 규모(특히 높이)가 문제시된다.

① 최상층은 일반적으로 전망이 우수하므로 해당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즉 회사의 인원실 및 후생시설(식당... 등), 호텔에서 레스토랑, 집합주택에서는 최고급의 주호 등을 배치하며 전망실이나 회의실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특히 공공건물에서는 최상층에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수면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도 상층부에서는 수면이 보이고 수면에 가까운 느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건물에서는 그 높이 효과를 살려 친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단면계획을 한다.

③ 해상이나 대안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중경이나 원경이 대부분이므로 건물군이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이 경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건물이 수체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옥역에서는 수체선에 가까운 건물은 낮게 하여 배후지 건물로 부터 조망을 확보하고 바다로 부터의 경관이 근경, 중경, 원경로 조화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주변 지형이나 건물로 구성된 스카이라인과 조화된 높이와 형상으로 계획하고 수역에서 보이는 건물의 윤곽을 아름답게 계획한다.

④ 출입로비나 테라스를 높이 끌어올려 친수성을 높일 수 있다. 높은 위치에 테라스나 발

코니를 두어 수역을 쉽게 조망하도록 하면 압박감이 불식되고 개방감과 친수성이 높은 공간이 된다.

4.5 건물색채계획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중에 하나가 건물의 외장재료 및 색채이다. 개개의 건물에 좋은 색채계획이 이루어져도 전체 경관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로서 어떤 매력을 해양경관에 부여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색채계획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관미의 핵심은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며 따라서 색채계획에서는 다양한 색채의 조합가운데 어떻게 질서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규칙성, 친밀감, 유사, 대비등의 계획원칙을 적용한다.

① 색채계획에서 규칙성은 외벽 등을 통일성있게 하므로써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틀을 백색으로 통일하거나 건물 전체를 백색의 벽체로 할 수 있다. 또는 색조를 질서있게 변화시키는 것(gradation)에 의해서도 규칙성을 줄 수 있다. 이때 해양이 갖는 분위기와 어울리는 기초 색채가 어떤 것인가 고려해야 한다.

② 친밀감에 대해서는 자연계에 있는 난색계통의 색을 사용하면 친밀감을 줄 수 있다. 친밀감은 재료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벽돌·석재·목재 등 자연재료로 구성된 건물은 친밀감이 높다. 또한 주변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과 조화된 재료를 사용하면 더욱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③ 유사성은 조화와 관계되는데 일정한 재료와 형태를 반복하므로써 유사성의 조화를 얻을 수 있다. 완만한 구배의 지붕, 동일한 양식의 건축언어, 유사한 색채의 타일 등을 사용하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회색은 어떤 색과도 어울리므로 회색을 사용하여 유사성의 조화를 습득할 수 있다.

④ 대비는 어떤 부분을 눈에 띄게 하여 전체의 중심이 되고 경관에 개성을 부여하며 장소의 인식에 도움이 되게 한다. 해양경관에는 빈 공간과 수면이 많은 부분을 점유하기 때문에 액센트로서 눈에 띄는 색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색채가 범람하면 질서를 잃게 되기 때문에 대비적인 색채계획은 유사성을 기초로 한다.

4.6 외부공간계획

건물의 외부공간은 주변 경관과 일체화된 계획으로 해양경관에 이바지해야 한다. 우선 수변에서 건물의 외부공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육역이나 수면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해양경관을 고려한 건물의 외부공간 계획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변에 설치된 유보도, 수변보도, 보드워크 등은 주변의 기존 시설과 일체로 계획한다. 수변의 목재바닥 광장이나 수면위로 길게 나온 데크 광장등은 물과의 친근감과 일체감을 주며 이로 인해 한층 질이 높은 쾌적한 경관을 만들 수 있다. 유보도는 수면에서 빠질 수 없는 경관요소로서 수면에서 즐거운 산책이 가능하도록 연출한다.
- ② 건물 외부공간계획에서는 무엇보다 물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친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에의 접근로 주변에 졸졸 흐르는 물이나 건물내 물의 정원, 건물벽면에 흘러내

리는 작은 폭포 등은 수경관을 연출하는 좋은 요소이다.

- ③ 조수의 간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조수공원등도 해양경관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 구조물이다. 분수는 해양을 인상깊게 연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해수면에서 경관의 일부로서 분수를 설치하면 정적인 수면에 변화를 주어 한층 해양의 분위기를 높일 수 있다.
- ④ 식재는 환경장치의 하나로서 그늘을 만들고 연출된 조망을 제공하며 살풍경한 인공구조물의 표정을 완화시키고 건물에 스케일감을 준다. 따라서 과도한 식재보다 수면의 조망을 방해하지 않으며 장소에 어울리는 수목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7 야경계획

수면에서 야경에는 두 종류가 있다. 야경을 구성하는 요인 측면에서 생활야경과 연출야경으로 구분하는데 생활야경은 가로조명, 산업활동, 주거생활에 따른 기능적인 조명에 의한 야경이다. 한편 연출야경은 특정한 건물을 야간에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의식적인 조명이다. 또한 야경은 조명광의 성질에 의해 직접광형, 내부조명광형, 반사광형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 야경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직접광형 야경은 가로조명, 일루미네이션, 네온사인 등과 같이 광원을 직접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산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항만의 야경은 주로 생활야경이면서 점광원군에 의한 직접광형 조명으로 구성된 야경이다. 타워나 다리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전구를 줄지어 설치하는 일루미네이션 조명은 직접광형 연출야경이다. 일루미네이션은 건물의 구조, 다리의 케이블, 선박의 각종 케이블 또는 줄에 설치한다.
- ② 내부조명광형 야경은 건물 내부조명이 창과 같은 개구부를 통해 확산 투과하여 개구부 자체가 면광원이 되는 상태로서 이루어진다. 작은 것은 내부조명의 간판, 일반주택의 창에서부터 크기는 고층건축의 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안도시의 야간조망은 직접광형과 내부조명형이 혼재한 생활야경이며(예를 들어 홍콩의 야경) 최근 고층건물에 커튼월이 채용되면서 내부조명광형 야경이 중심이 된다.
- ③ 반사광형 야경은 투광기에 의해 조명광을 대상물에 비춰 반사시키므로 건물이나 교량등을 야간에 돋보이게 하는 라이트업(light-up) 기법이 중심이 된다. 반사광형 야경은 생활야경보다 연출야경에 사용된다.
- ④ 내부조명광형과 반사광형 야경을 건물에 적용할 때 건물벽면이 관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벽면에 대해 시선의 각도가 좁은 곳에서는 경관상 불리하다. 또한 관상자와 건축물 사이에 시각적 연결이 필요하며 가로, 광장, 수면 등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수면은 빛을 반사하여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야경계획에 중요하다.
- ⑤ 넓은 수면은 광원이 없는 어두운 부분으로서 밝은 건물이나 항구등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중요하다. 한편 광원이 집중해 있는 부분은(예를 들어 항만시설... 등) 야경에서 집중점이 되어 경관상 중요한 장소가 된다. 특히 어두운 수면과 밝은 부분이 적절하게 결합되지 못하면 야경은 정리되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수제선을 따라 선적인 조명을 보강하며 수면에서는 어두움이 가득하도록 계획한다.

- ⑥ 연출야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라이트업 조명기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성곽, 역사적 건축물, 항만시설 등 도시 및 수변의 랜드마크를 조명한다. 라이트업시에는 일정한 연출개념 및 의도에 따라 대상을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⑦ 수변에서 연출야경과 생활야경은 양립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연출야경은 그 효과가 높기 때문에 주위가 적당히 어두운 것이 좋다. 그러나 조명된 대상물보다 주위의 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야경계획에 주의한다. 또한 기존 수변의 생활야경이 우수한 경우 또는 특색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출야경을 추가하므로써 생활야경의 특색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양호한 해양경관을 보전하고 해양건축물의 건설에 따라 해양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디자인 방안과 법적 관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의 일부이며 후속되는 해양경관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해양경관은 해양을 매개로 육상과 다른 독특한 경관적 특질을 가진다. 해양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수제선, 바다를 둘러싼 육역부와 하늘이 만나는 스카이라인이다. 해양경관을 구성하는 수제선과 스카이라인은 건축물에 의해 시각적으로 파손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않된다. 그러므로 해양건축물을 계획할 때에는 수제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고 수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배경의 지형을 고려하여 건물의 규모(특히 높이)와 건물의 형상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향후 해양경관에 대한 평가와 해양건축물이 해양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상세한 디자인 지침과 법적 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 1) 임승민,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 2) 윤갑진, '해양경관 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수산대 석사논문, 1995
- 3) 日本建築學會, 海洋建築計劃指針, 日本建築學會, 1988
- 4) 日本建築學會, 海洋建築と環境, 日本建築學會, 1991
- 5) 佐久田昌昭, 海洋建築入門, 講談社, 1983
- 6) 伊澤 岬, 海洋空間のデザイン, 彰國社, 1990
- 7) 横内憲久外, ウォーターフロントの計劃ノート, 共立出版株式會社, 1994
- 8) 磯部雅彦編, 海岸の環境創造, 朝倉書店, 1994
- 9) 小林理市, 海洋建築物の設計, オーム社, 1995
- 10) A. Kuroyanagi, 'Oceanic Architecture:Creating Ocean Space', Process Architecture 96, Composition of Oceanic Architecture, 1991.6